

겐에몬 가마의 역사와 이념

겐에몬 가마는 260 여 년 전에 개설되었습니다. 1753년 이래, 거의 자동화하지 않고 수작업을 통한 전통이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.GENE MONO KILN은 아주 세련되고 전통적인 공정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도자기 공방 중 한 곳으로, 아리타 지역의 자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. 에도 시대(1603~1868)에는 가마에 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GENE MONO KILN의 작품은 공동 가마에서 구워졌습니다. 1868년 막부가 무너지고 가마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1870년대 초에 GENE MONO KILN 가마는 서양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

1950년대까지 GENE MONO KILN 가마는 요정에서 사용하는 식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1951년에 부친인 5대 GENE MONO KILN(~1962년)이 은퇴한 후 6대 GENE MONO KILN(1928~1989)이 가마를 이어받았고 가정용 식기뿐만 아니라 아리타 도자기를 바탕으로 한 무늬가 들어간 직물과 만년필 등의 생활용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. 현재 당주이자 6대 GENE MONO KILN의 차남인 가네코 쇼지 씨(1957년생)도 찻잔과 젓가락 받침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제 작품을 생산하는 데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.

현재도 장인이 생산 공정 중 한 가지만 전문화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GENE MONO KILN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의 각 공정(성형, 시타에쓰케(*underglaze decoration*, 밑그림), 시유, 우와에쓰케(*overglaze decoration*, 상회칠), 소성)은 각각 다른 팀이 진행합니다. 공방에서는 작업을 관찰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입 장인이 베테랑 장인 옆에 앉아 있습니다.